

한/중/일/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의 건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提案事由

- 환동해권 4개국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신규 국제항로의 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와 관련, 지방재정법에 의거 속초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여 출자하고자 함

2. 提案根據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의 제한) 제2항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 의3(설립) 제1항 및 제2항
- 다.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7조의2(출자·출연의 타당성검토) 제1항, 제2항 및 제3항

3. 出資規模

- 신항로개설 4개국 합작법인 설립자본금 30억원 중 10%인 3억원을 속초시에서 출자
- ※ 총출자액은 미화3백만불의 10%인 3십만불 임

4. 主要內容

- 속초~일본 니이가타~러시아 자루비노~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신규 국제항로의 4개국 합작법인을 국내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
- 한일간 수도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을 연계한 환동해권 주력 항로로서 지역의 수출입 물류증대와 해외 관광객 유치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
- 강원도와 연계한 출자참여로 신규 설립법인의 본사를 속초에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관리코자 함

5. 其他事項

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시행령 제67조의 2에 근거한
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
 - 속초 신규항로 합작법인 출자타당성 조사결과 (“별책”)
- 동법에 근거한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: 2007.6.20
 - 신규법인 총자본금 10%인 3억원 출자의결(“의결록사본 별첨”)

議 決 錄

(속초시 신규항로 합작법인 출자심의위원회)

의안번호	제 1 호
상 정	2007. 6. 2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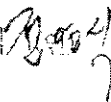
제 목	속초시 신규항로 합작법인 출자여부 심의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□ 決定事項

○ 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자본금의 10%(3억원) 출자 - 강원도, 속초시 각 10%(3억원), 범한상선 31%(9억원) 출자참여로 본사를 속초에 두며 항로의 주도권 확보운영 -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의 25% 미만 출자법인으로 관리

□ 議決事項

職 位	決定內容		職 位	決定內容	
	가	부		가	부
위 원 장	263/11		경동대 경영학부장	Daegu	
김성근시의원			자치행정과장	16420	
김진기시의원			지역경제과장	75112	
속초시민영화장			해양수산장	052 11113	
상곡회의소부회장			속초항물류 사업소장	가장장	
동우대학 지역 발전연구소장					

간사 : 통상물류담당 전영식 

「속초~니이가타항로」 개설 추진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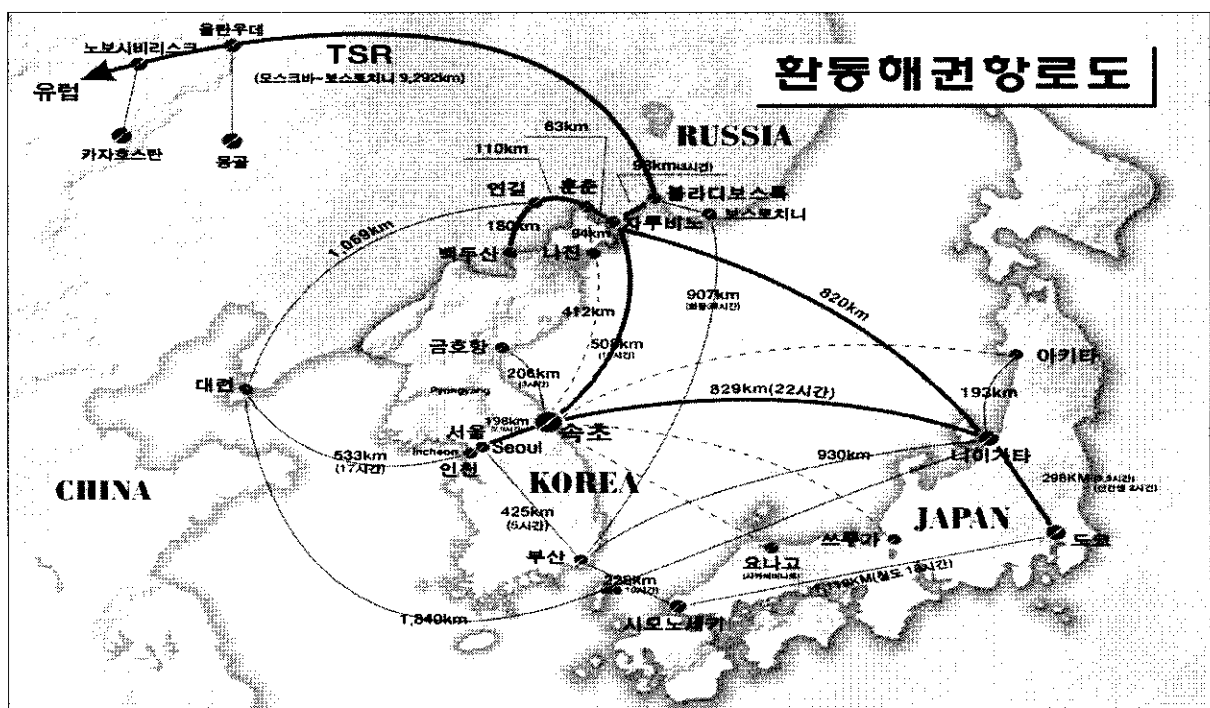
束草港物流事業所

「속초~니이가타항로」 개설 추진상황

■ 항로개설 필요성

-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, 국제물류 운송망 구축을 통한 인적·물적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
- 특히, 황금삼각주(Golden Tri-Angle) 지역인 환동해권의 국제물류 운송망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련 국가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)간 교류확대
- 중국의 길림성, 흑룡강성 등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UNDP 두만강 개발계획의 조기 가시화에 기여
- 속초항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항로개척 및 여객물류의 선점으로 환동해권 거점항 육성
- 강원도의 대일본 수출입 직항로 개설에 따른 농수산, 제조업, 관광산업 등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《環東海圈 航路現況》



■ 추진 개요

- 2003년 3월 10일 : 환동해권 물류운송망에 대한 최초 협의(서울)
(일본 ERINA연구소, 동춘항운)
- 2004년 7월 12일 : 두만강지역의 개발 회의(블라디보스톡)
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)
- 2005년 9월 2일 : UNDP 두만강 개발 계획 분과회의, 한국측에서
“신규항로”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(장춘)
(한국, 중국, 러시아, 북한, 몽골)
- 2006년 2월 20일 : 두만강지역 개발 및 운송망 구축회의에서 공식
의제로 채택 “환동해권지역의 신규항로” 개설
에 대한 주제발표 및 신규항로 MOU체결(훈춘)
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몽골)
- 2006년 5월 25일 : 일본 신규항로에 대한 MOU체결 (연해주)
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)
- 2006년 8월 7일 : 신규항로 국제회의 및 MOA체결(블라디보스톡)
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)
- 2006년 12월 6일 : 신규항로에 대한 TOKYO FORUM (동경)
(한국, 일본, 러시아)
- 2007년 2월 6일 : 북동아시아경제발전국제회의 (니이가타)
(한·중·일·러 4개국 지방정부 대표자 협정체결 양해각서)
- 2007년 5월 28일 : 신항로 개설 4개국 관계자 회의 (훈춘시)
(본사 소재지 속초시로 합의, 한국측지분 51%로 상향조정 건의)
- 2007년 7월 6일 : 신항로 개설 4개국 관계자 회의 (속초시)
(출자 지분 확정 및 실무진 구성)
- 2007년 8월 26일 : 신항로 개설 4개국 관계자 회의 (훈춘시)
(출자자본금의 납부시기, 송금체계, 대한민국 상법상의 법인등기 등)

■ 법인설립 개요

1. 회사명 : 동북아훼리주식회사
(North-East Asia Ferry Co.,Ltd)

2. 설립자본금 : 미화 300만 불

3. 사업의 주체

구 분	회 사 명	출자비율
대한민국	범한상선(동춘항운), 속초시, 강원도	51%
일 본	니이가타시, 니가타시경제동우회	16%
중 국	훈춘시 인민정부	16%
러시아	연해주정부(베르굿사)	17%

4. 운항선박의 확보 방안

● 확보방법 : 정기용선

선 명	선 종	총톤수	항해 속력	수 송 능 력
T.B.N.	카훼리 (RO-RO)	15,000	20 Knot	○ 여객 : 500명 ○ 화물 : 120TEU

● 용 선 료 : US\$ 12,000 / DAY

5. 운항계획

● 운항구간 : 속초 ↔ 니가타 ↔ 자루비노·훈춘
(829km) (820km) (63km)

● 항해거리 : 970 마일

● 항해시간 - 훈춘 ~ 자루비노(육상) : 2시간
- 자루비노 ~ 니가타(해상) : 23시간
- 니가타 ~ 속초(해상) : 24시간

● 운항횟수 : 왕복 주 1항차

■ 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

- 해상운송로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간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
 - 강원도 농수산물 등 수출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
- 국제정기선 항로의 확보로 지역간 물류운송의 경쟁력 확보
 - 중국 동북 3성~ 니이가타항 : 약 13일→약 2일로 단축
 - 한국의 수도권화물 ~ 니이가타항 : 약 4일→약 1일로 단축
- 특히, 일본과 중국의 동북 3성간의 최단거리의 직항로의 개설을 통한 지역간의 경제발전과 투자 확대·촉진
- 한국, 일본, 중국 및 러시아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교류의 확대

■ 향후 추진계획

1. 신항로 4개국 합작계약 체결 : '07. 9. 17
 - 국내 강원도, 속초시, 범한상선 공동출자협약 별도 체결
2. 신항로 합작법인 출자금 납부 : '07. 9. 30
3. 신항로 합작법인 설립 : '07. 10월 중
4. 신항로 개설관련 제4회 동북아국제포럼개최 : '07. 11. 5~8일